20210606-1347□-□□-1_□□□□□ 21. 6. 4. □□ 6:41 Page 1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21년 6월 6일(주일) 제1347호

지난해 마리아행전 참가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마리아행전 '일어나 함께 가자'

6월 23~25일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 이재훈 담임목사, 조호영 목사, 유기성 목사 강의

2021 마리아행전 '일어나 함께 가자'가 막 오른다. 6월 23일(수), 24일(목), 25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감염병 예방으로부터 안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열린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집회실황을 각 캠퍼스로 송출한다.

2021년 마리아행전 주제 '일어나 함께 가자'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 2:10) 말씀에서 인용했다. 6월 23일(수) 조호영 목사(여성사역본부장), 24일(목)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25일(금)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2021 마리아행전 참가신청은 6월 5일 토요주일예배, 6일 일요주일예배, 9일 수요여성예배 이후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접수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신청할 수 있고, 현장신청만 받는다(선착순 마감). 온라인, 전화 접수, 당일 등록은 받지 않는다. 대리신청도 불가하고, 행사 당일 자리 맡기도 할 수 없다. 회비는 1만 원이다.

각 캠퍼스 본당 입장 인원은 서빙고 440명, 양재 575명, 부천 200명, 수원 145명, 인천 100명, 대전 225명, 남양주 100명, 강동 130명, 평택 60명, 양지 50명, 서산 60명이다.

마리아행전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밝은색 상의와 짙은색 하의를 입어야 한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좌석 QR코드를 꼭 스캔해야 한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난 주일예배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절실하다"면서 "여성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 믿는다"고 말했다.

문의: 02-3215-3667, 3201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6월 비전헌금

대청 아웃리치, 에젤선교회 후원

6월 12일과 13일 봉헌하는 6월 비전헌금은 대학청년부 여름 아웃리치와 에젤선교회를 후원하는데 사용된다. 대학청년부는 7~8월 'Living Hope'를 주제로 아웃리치를 실시한다. 국내 아웃리치 73개 팀, 해외 비대면 아웃리치 31개 팀, 온누리M센터 및 이주민사역 18개 팀 등 122개 팀이 비대면 사역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대면사역을 할 예정이다.

에젤선교회는 중보기도와 재정으로 선교사들을 돕는 초교파적 선교단체이다.

/ 정현주 기자

'달려라! 퐁당' 6월 7일까지 참가자 모집

CGNTV 홈페이지, QR코드로 참가신청

CGNTV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퐁당'이 6월 7일(월)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CGN TV 홈페이지나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CGNTV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퐁당'은 지난 5월 22일 시작됐다. 운동한 거리만큼 후원하는 캠페인이다. 후원금 전액은 CGNTV가 출시한 기독 OTT '퐁당' 키즈 콘텐츠를 제작하고 허입하는데 사용된다. CGNTV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퐁당'에는 개인, 가족, 지인, 순원이 함께 참가해서 후원할 수 있다. CGNTV에서는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퐁당' 참가자들을 위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운동하는 사진을 찍어서 문자메시지(010-6555-2243)로 전송하는 포토 이벤트와 '달려라 퐁당 클래스' 수강 후기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02-796-2243

/ 김영선 기자

〈달려라! 퐁당 참가신청〉

"미얀마를 회복시키소서"

미얀마를 위한 특별기도회

온누리교회가 미얀마의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지난 6월 2일(수)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미얀마를 위한 특별기도회'가 열렸다. 온누리교회 미얀마예배 창립 25주년 감사예배도 함께 드렸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미얀마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권면했다. 사인삐 전도사(김포M센터 미얀마공동체)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관련기사 4면〉.

/ 김영선 기자

공동체_ 순, 놀면 뭐하니? 5면 기획_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캠페인 6면 전문가 기고_ 크리스천과 가상화폐 투자 7면

20210606-1347□-□□-1_□□□□□ 21. 6. 4. □□ 6:41 Page 2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성경의 역사성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나심을 사실로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 예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은 유대인과 로마의 역사서에 의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판명되었다. 이 역사적 기반을 와해시키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와 세계관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 분명하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다른 세계관들은 성경의 역사성을 공격함으로써 기독교 세계관의 기반을 공격하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그 공격의 내용이 다양하고 방대해서 개인이 직접 연구해서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에 대해 지금까지 기독교 측에서 답해왔던 내용을 종합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우리부터 그 진실성에 대해 진심으로 승복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렉 길버트는 〈성경을 왜 믿는가?〉에서 대표적인 질문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현재의 성경이 원문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 둘째, 필사자들이 원본을 우리에게 정확히 전달했는가? 셋째,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원래 성경에서 빠지거나 추가된 것은 아닌가? 넷째, 성경의 기자들은 믿을 만한가? 다섯째, 성경 기자들은 실제 일어난 사실을 정확하게 제공한 것이 확실한가? 그렉 길버트는 이 질문에 설득력 있게 근거를 제공하며 대답한다.

리 스트로벨의 책 〈성경은 역사다〉는 13명의 이 시대 최고의 신학자, 역사학자, 심리학자, 의학자, 변증학자들에게 신약 성경의 사건들이 역사적 사실인지에 대해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취재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질문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의 답변 중에서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유용한 지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20~30년 내에 바울서신이 기록되었고, 복음서들도 아주 이른 시기, 최소한 60년 이내에 기록되었다. 이 주장은 2세기 초 초대교부 파피아스나 이레니우스의 기록 등 성경 외의 기독교 문서들에 의해서도 확증된다. 둘째, 신약성경은 고대의 많은 문서 중에서 가장 많은 사본과 번역본이 있다. 다양한 장소에서 발견되었고, 사본 간의 일치도가 아주 높다. 고대의 다른 역사서나 문학작품은 사본의 수가 적고, 가장 오래된 사본도 대체로 600년에서 1000년 이후 사본이다. 반면 요한복음의 파피루스 기록은 AD 100~150년 정도로 거의 원본과 비슷한 시기의 기록이고, 사본의 숫자는 수만 개에 달한다. 셋째, 성경 외의 역사적 기록과 사적인 편지 속에 예수와 기독교에 대한 기록이 풍성하게 남아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예수와 그 추종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있다. 넷째, AD 55~57년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린도전서의 15장 3~4절에 기독교의 초기 신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한 AD 51년에 이미 확립되어 있던 것을 전달했다고 기록했다. 이는 예수의 부활신앙이 기독교의 아주 초기부터 공식적인 믿음의 기둥으로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일어난 성경에 대한 비판적 분석연구가 있다. 그들은 구약, 특히 모세오경과 구약에 대해 공격적인 비평을 한다. 성경 비평은 고등비평과 하등비평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등비평은 성경의 원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사본들의 내용부터 성경의 진정한 원문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반면 고등비평은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성경의 책들은 실제로 언제 쓰였는가? 누가 실제로 이 책을 썼는가? 이 질문들은 반드시 역사적 배경에서 어떤 저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자료를 취사선택해서 어떻게 편집했는지 이해해야 하므로 역사비평, 자료비평, 편집비평과도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 고등비평가들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는 성경 영감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구약성경은 이전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던 내용을 편집한 것에 지나지 않고, 모세오경도 유대가 바빌론에 멸망해서 사로잡혀 갈 때까지는 기록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모세오경이 모세가 실제 쓴 것이 아니라 10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BC 500년경 기록되었다는 그들의 주장이 수용된다면 구약성경의 권위가 공격받을 수 있다.

신약성경에 대한 고등비평은 수없이 많은 사본 자료와 다른 역사적 자료들로 그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나 구약성경은 입증할 역사적 자료가 적기 때문에 고등비평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거나 방어할 자료가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그렉 길버트는 "당신은 왜 성경을 믿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예수의 부활과 신약성경의 진실성에 근거해야 한다. "너희가 성경(구약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 5:39),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구약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눅 24:44), 그리고 누가복음 4:18~19 이사야를 인용한 사명선언 같은 신약성경의 구절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구약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역사적 신빙성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위에 기초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믿는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묵상: 구약성경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무신론자들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온누리 세계관학교(OWA) 북클럽

진리로 세상적 세계관을 깨뜨리는 여정

불교적 가치관을 가졌던 친할아버지와 유럽에서 받아들인 진한 인본주의적 가치관으로 철저히 무장된 친정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20대의 나는 도저히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위기상황에서 만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만큼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셨다. 충격 그 자체였던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갈망과 사랑이 엄청났지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나에게 오랫동안 하나님은 감성 속에서만 역사하시고 아픈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었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나는 새벽기도를 끝내고 직장에 서면 2시간이 안 돼서 하나님을 잊었다.

온누리 세계관학교(OWA) 스태프를 시작한 것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낯설게만 느껴졌다. 나뿐 아니라 10년 전 세계관학교를 시작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담당목사님께 도대체 세계관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니 우리가 일단 세계관을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신국원 교수님과 안점식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그때 "세계관은 실재를 보는 안경"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실재(reality)'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리송했다. 세계관이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거기서 행동양식이 나오는데 세계관은 무의식적이고 비의도적으로 형성된다고 했다.

초기에는 세계관학교에 다니면서도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또 다시 세상적 세계관으로 회귀하는 일상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수영장에서 잠깐 떠올라 숨 쉬고 다시 세상이라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아쉬웠다. 괄목할 만한 변화는 세계관학교 북클럽을 통해서 경험했다. 북클럽에서는 함께 모여 발표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데 여럿이 서로 도와가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지혜의 문이 열렸다.

첫 번째 세계관학교 북클럽에서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자연적 자아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다. 가지를 쳐 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뽑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십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자아양도를 분명히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려놓음'이나 '순종'과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불교식 세계관과 교묘하게 합쳐진 나의 죄성이 이런 구절들을 자기소멸로 인식하게 해서 허무함과 소극성을 느끼게 하곤 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자아양도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동성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묘사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생생하면서도 역동적인 사랑의 활동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이 활동이 모든 것을 창조해 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심지어 한 인격체로만 그치는 분이 아니라 역동하며 약동하는 활동 생명 일종의 드라마에 가까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주는 춤 드라마 양식 전체는 우리 각자의 생명 속에서 재현되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각자는 그 양식에 들어가야 하고 그 춤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제자된 우리의 인생도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듯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드라마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경륜과 인간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논리가 아니라 문학적 언어로 맛볼 수 있게 해줌으로 자아양도에 따르는 두려움과 허무감을 제거해 주었다. 염주처럼 이어져 열린 입구를 찾을 수 없는 세상적 세계관을 가졌던 나의 정신세계가 성경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지나고 있다.

박은미 성도
(서초A공동체,
수원대 교수)

20210606-1347□-□□-1_□□□□□ 21. 6. 4. □□ 6:41 Page 3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십자가에 못 박힌 가정

누가복음 14:25~27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받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면 비로소 가족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26~27절).

어느 불순한 사람이 이 구절만 뽑아서 예수님이 인륜을 거스른다고 잘못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읽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 구절을 이용해서 자신의 잘못된 감정을 합리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른 가르침과 상충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고, 서로 원수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구절을 자주 이용합니다. 가족과 불화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리가 가정에 임할 때 때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들과 분리되는 불가피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때로 가족에게 원수처럼 취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 앞에서 더욱 충격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여기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공생애를 방해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가족도 외면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가족에게 오해를 받았고, 가족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족 간에 있어야 할 자연인 사랑을 부정한 것일까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염려하셨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효자셨습니다. 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행하신 분입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핵심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에 있어야 할 참된 사랑을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 입고, 가족 간에 불화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족만 최고고, 우리 가족만 잘 살아야 하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왜곡된 우선순위가 가정을 참 행복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정을 못 박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가정에 고통이 임하는 까닭은 우상이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행복하기를 기대하고, 가정에 대한 많은 꿈을 꿉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지 않고, 우리의 본능적인 사랑으로만 이루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가 자식을 최선을 다해 길러도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자녀가 최우선이라고 여겼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웃을 배려할 줄 모르고, 범죄인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우상이 될 때 자녀가 더욱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고, 가족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만 있을 때 자녀가 축복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제자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음으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가족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발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잃어버릴 때 비로소 나를 되찾는 것처럼, 가정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길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쁜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의 마음 한편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희생적인 사랑을 주는 어머니의 마음 한편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 사랑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가정 중심으로만 살아가면 도리어 가정에서 깊은 상처와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눅 14:26, 개역개정).

'미워하지 아니하면'을 우리말성경에서는 '나보다 더 사랑하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미워하다'는 것은 셈족언어의 과장법인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히 큰 나머지 가족에 대한 사랑이 도리어 미움처럼 여겨질 정도로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면 가족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사랑,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주변 사람을 올바르게 사랑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사랑이 되기에 인간적인 사랑이 주는 죄와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살리는 사랑, 회복시키는 사랑, 진정 세우는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가족을 뛰어넘어 이웃을 사랑하고, 수많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축복이 되려면 우리 가족이 최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족이 못 박힐 때 진정 가족이 축복이 됩니다.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신앙의 선배들

예수님을 가족보다 사랑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먼 듯한 분들이지만, 못 따라갈 것도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계실 때 병약하신 어머님이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마음을 일본 형사들이 이용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효심을 자극하면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지 말라고 회유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감옥을 나오셨습니다. 조건적인 석방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집에 돌아왔을 때 자초지종을 들은 아내 오종모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발걸음을 돌려 다시 감옥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하셨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에 대한 효심 때문에 감옥을 나온 주기철 목사님을 다시 돌려보내는 아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랑 아닙니까? 만일 주기철 목사님이 어머님을 돌본다는 이유로 돌아와서 신사참배 반대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교회에 중요한 맥이 끊겼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 후배들이 바라보고 회개 할 사도행전적인 모델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함께 그 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 뿐만 아니라 그 운동이 급속히 약화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발걸음이라는 것을 사모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사랑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발걸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릴 복음의 능력, 한국 교회에 미칠 영향을 바라보면서 남편에게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가정의 모습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도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정양순 사모님은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 문제로 1년 7개월 형을 받고 순천형무소에 있을 때 혼자 여수 애양원을 섬기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제목이 늘 이랬습니다.

〈14면에 계속〉

20210606-1347□-□□-1_□□□□□ 21. 6. 4. □□ 6:41 Page 4

"온누리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

미얀마를 위한 특별기도회 … 민주주의와 복음화 간구

미얀마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내전 발발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학교시설마저 방화와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미얀마의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 온누리교회가 미얀마의 민주화와 복음화를 위해 지난 6월 2일(수)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미얀마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개최했다. 미얀마 유학생, 이주민 근로자, 미얀마 난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르짖었다. 그 뜨거운 현장에 다녀왔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미얀마를 위한 특별기도회에서 만난 빤심마이 자매(전주비전대학교 유학생)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날마다 급변하고 있는 미얀마 사태가 빨리 끝나는 유일한 방법은 성도들의 기도뿐이라고 호소했다.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 쿠데타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미얀마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복음화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성도들의 기도뿐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고, 미얀마를 위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빤심마이 자매는 까친족이다. 까친족은 최근 미얀마 군부와 산발적으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소수민족이다. 그녀는 요즘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하느라 피 말리는 심정으로 지내고 있다. 빤심마이 자매도 가족들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빤심마이 자매는 가족들이 무사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미얀마 사람들이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어느 종족이냐 어느 편이냐를 떠나서 모든 미얀마 사람들이 더 이상 피 흘리지 않게 기도해주십시오."

빠꼰엔 자매(김포M센터)는 미얀마 난민이다. 미얀마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상황을 전혀 몰라서 애만 태우고 있다.

미얀마 이주민들이 미얀마를 위한 특별기도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미얀마에 할머니와 큰아버지, 고모 가족이 있는데 연락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김포M센터 소속 선교사님들과 봉사자님들이 함께 기도해주셔서 어려운 시간을 간신히 견디고 있습니다. 빨리 이 비극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를 위한 특별기도회에 참석한 미얀마 유학생들과 이주민 성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해주는 온누리교회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망망 형제(안산M센터 이주민 근로자)는 미얀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온누리교회는 25년 동안이나 미얀마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에게 온누리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미얀마 이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공동체입니다. 부디 미얀마에 민주주의가 세워지고, 복음이 널리 퍼질 때까지 그 사랑과 관심을 계속 베풀어주십시오. 미얀마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얀마공동체 창립 25주년 감사예배

온누리교회는 지난 4월 12일부터 6월 4일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미얀마 회복을 위한 40일 중보기도'를 했다. 성도들의 후원으로 미얀마 국민들을 돕는 일도 했다.

온누리교회 미얀마예배공동체가 창립된 지 올해가 25주년이다. 미얀마를 위한 특별기도회에서는 온누리교회 미얀마예배공동체 창립 25주년 감사예배도 함께 드렸다.

온누리교회와 미얀마의 인연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온누리교회는 1995년부터 미얀마를 품고 기도하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1995년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미얀마인 7~10명이 체류하는 쉘터를 개원했다. 쉘터에서는 주로 미얀마 이주민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1996년 4월에는 미얀마 이주민 근로자 14명이 외국인 성경공부 과정을 이수하기도 했다. 리안 목사도 그 과정을 이수했다. 리안 목사는 지금 호주에서 1천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다. 또한 온누리교회는 1996년 5월 미얀마예배를 개척하고 예배, 선교, 양육, 긍휼사역 등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온누리교회 미얀마예배공동체는 안산M센터와 김포M센터에 있다.

문의: 온누리M미션 02-3215-3730

미얀마를 위한 기도

슬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40일 동안 '미얀마 회복을 위한 40일 중보기도'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내부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규모 시위가 사라지고, 작은 크기의 시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신 시민군이 만들어져서 군부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곳곳에서 시민 방위군과 군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피가 흐를수록 거세지는 충돌은 내전 양상을 보입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는 시민 방위군이 활동하는 지역을 폭격했습니다. 빨리 이 비극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군부는 쿠데타 발생 이후 최소 88명의 언론인을 체포했고, 박해와 협박, 폭력으로 회유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해외에서 미얀마 내부를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4월부터 전국의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미얀마 내부의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내부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제전화입니다. 그마저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가끔 인터넷 전화가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통화가 되면 중간에 누가 듣고 있는 것 같았고 잡음이 많습니다.

교육환경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교사 절반 이상이 파업을 선언하고 시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군부 주도로 새로운 학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10% 미만의 학생들만 등록하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 지금까지 800여 명 이상 목숨을 잃었고, 4,000명 이상이 체포당했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미얀마 국민들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미얀마 상황은 어렵지만, 온누리교회에서 '미얀마 회복을 위한 40일 중보기도'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참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미얀마 회복을 위한 40일 중보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은 몇몇 성도님들께서는 중보기도와 더불어 식량과 물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이 식량과 물품들은 온누리교회와 연결된 미얀마 현지교회를 통해 미얀마 국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미얀마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을 통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얀마의 미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미얀마를 위해 힘을 모으고 지원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군부 쿠데타가 속히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미얀마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 사인삐 전도사(김포M센터 미얀마공동체)

20210606-1347□-□□-1_□□□□□ 21. 6. 4. □□ 6:41 Page 5

순, 놀면 뭐하니?

“1년에 성경 4독이 목표!”

서대문공동체 누가1순의 ‘두 번째 90일의 기적 성경읽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집합금지), 이동 자제, 종교활동 제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멈춘 것 같다. 하지만 결코 멈출 수 없는 게 있다. 하나님을 알고, 묵상하고, 믿는 것이다. ‘순, 놀면 뭐하니?’ 지면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소개하는 코너이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서대문공동체 누가1순이다. 서대문공동체 누가1순 순원들은 지금 성경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지난 4월 5일(월)부터 ‘두 번째 90일의 기적 성경읽기’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서대문공동체 누가1순 단체채팅방에는 날마다 딸기 이모티콘이 올라온다. 누가1순이 지난 4월 5일부터 ‘두 번째 90일의 기적 성경읽기’를 하고 있는데, 순원들이 그날 읽을 분량의 성경을 다 읽으면 단체채팅방에 날짜와 함께 딸기 이모티콘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싱싱한 딸기 열매처럼 늘 말씀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마음에서 딸기 이모티콘을 올리고 있다.

올해 초 시작한 90일의 기적이 4월 3일(토) 끝났고, 누가1순의 두 번째 90일의 기적 성경읽기가 4월 5일 시작됐다. 쉬지도 않고 성경읽기에 돌입한 누가1순의 결심이 참으로 단단하다.

강찬석 장로가 누가1순의 두 번째 90일의 기적 성경읽기 포부를 밝혔다.

“‘1년에 성경 4독’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자신있게 소개하는 이유는 순원들의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쐐기를 박으려는 것입니다(웃음).”

‘1년에 성경 4독’이라는 엄청난 목표를 들은 김은미 순장이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화답했다.

“누가1순 순원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두 번째 90일의 기적 성경읽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누가1순 가족들이 ‘1년에 성경 4독’이라는 목표를 완수해낼 거라 믿습니다.”

김은미 순장은 두 번째 90일의 기적 성경읽기를 하면서 순이 말씀으로 하나되는 은혜가 가장 크다고 고백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순원들을 하나로 묶는 것 같습니다. 한번은 조영 집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단체채팅방에 질문을 올리셨습니다. 순원들이 그 질문의 답을 찾아서 알려줬습니다. 어느 순원은 목사님께 묻고, 어느 순원은 인터넷을 찾기도 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예전보다 순원들의 유대감이 더욱 끈끈해진 것 같습니다.”

순예배에서 순원들의 나눔도 더욱 넓어지고 깊어졌다고 했다.

“제가 순장으로 섬기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순원들에 비해 리더십 경험이 짧아서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90일의 기적 성경읽기를 하면서 순예배 나눔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졌습니다. 순원들의 나눔이 넓어지고 깊어진 덕분에 새가족들도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가졌던 순장의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김은미 순장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 ‘1년 4독’을 목표로 두번째 90일의 기적 성경읽기를 하고 있는 누가1순(김은미 순장, 강찬석 장로).

“성경읽기는 결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겠다고 결단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읽기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이유 없이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 따른다면 얼마나 예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조영 집사가 받은 은혜 그리고 소망

조영 집사는 두 번째 90일의 기적 성경읽기를 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순원이다. 조영 집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는 아니었다.

“온누리교회에 1992년에 왔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활동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잘나서 혼자서 잘 믿겠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성도였지요.”

조영 집사는 두 번째 90일의 기적 성경읽기를 한다고 했을 때 주저하는 마음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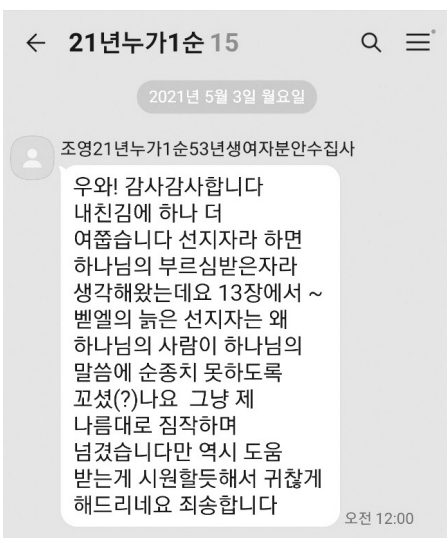
“올해 초 했던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은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참여하는 분위기라 의무감에 했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난해하거나 재미없는 부분을 읽을 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시간에 쫓기듯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순에서 두 번째 90일의 기적 성경읽기를 한다고 했을 때 고민했습니다. 저의 믿음이 깊지 않아서 따라가지 못하거나 순원들에게 방해가 되면 어쩌나 하고요.”

조영 집사의 고민이 깊고 길었지만, 결국 두 번째 90일의 기적 성경읽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몇 번씩 다시 읽기도 하고, 모르는 부분은 단체채팅방에 질문했습니다. 단체채팅방에 질문하는 것이 바쁘신 순원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는데, 다들 성심성의껏 답을 찾아서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순원은 자기도 몰랐던 부분인데 저의 질문 덕분에 이해하게 됐다고 말씀해주시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모르는 게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볼 것입니다(웃음).”

조영 집사는 두 번째 90일의 기적 성경읽기를 하면서 간절한 소망이 생겼다.

“자녀들과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힌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강퍅했던 남편의 마음이 요즘 들어 많이 부드러워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하나님 믿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1순 단체채팅방에 올라온 조영 집사의 질문

두 번째 90일의 기적 성경읽기 참가자 소감

날마다 말씀 먹는 습관

“우리가 하루에 3끼를 계속 먹어야 사는 것처럼 90일의 기적 성경읽기를 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먹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순원들이 너무 좋아하고 열정을 가지고 동참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훈의 달 6월 첫날, 예레미야애가를 묵상하며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6.25라는 아픔을 잊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누가1순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강찬석 장로

좋은 이유 다섯 가지

“순에서 두 번째 90일의 기적 성경읽기를 하면서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첫째, 순원들이 매일 서로를 격려하고 딸기 이모티콘을 올려줘서 좋습니다. 둘째, 말씀을 여유있게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셋째, 공동체 OBC 강의와 맞물려서 몰랐던 성경 내용들을 더욱 깊고 자세히 알게 되어 좋습니다. 넷째, 말씀을 듣고 출근했더니 직장생활에 힘이 생겨 좋습니다. 다섯째,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목소리가 더욱 정겹고 집중력 있게 들려 좋습니다.”

/ 심재이 다락방장

20210606-1347□-□□-1_□□□□□ 21. 6. 4. □□ 6:41 Page 6

“용기 내 보았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제로 웨이스트’ 도전기

6월 5일(토)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했다.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국민의 환경 보호 의식 함양을 위해 환경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다. 과연 지금 우리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환경의 날을 맞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환경 보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이다. 기자가 직접 제로 웨이스트에 도전하면서 경험한 일상을 소개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기자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왼쪽부터 ‘용기내 챌린지(식재료나 음식을 다회용기에 포장해오는 환경운동), 고체 샴푸바, 면 생리대’.

온누리신문사 사무실에 일회용 종이컵이 사라진 지 6개월째다. 직원들 모두 개인 텀블러나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다.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책상에 놓인 머그컵을 씻는 일이다. 가끔 귀찮을 때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이다. 매일 6~7개씩 나오던 종이컵 쓰레기가 사라졌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는 환경 캠페인을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라고 한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을 ‘0(제로)’에 가깝게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편리하고 위생적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당장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편하고 익숙한 일상을 포기하는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다. 그래도 환경을 위해 번거로움을 견디고, 불편을 감수하고, 낯선 것에 도전해보면 좋겠다.

번거로운 용기 ‘용기내 챌린지’

나른한 주말 오후 오랜만에 집 청소를 할 겸 몇 평 안 되는 작은 방을 둘러봤다. 방 한편에 배달음식이 담겨 있던 플라스틱 용기가 가득 쌓여 있었다.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쓰레기장으로 갔더니 분리수거 박스도 가득 차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및 포장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불필요한 포장 쓰레기들이 산을 이루고 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상반기 플라스틱 폐기물량이 하루 평균 848t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6%나 증가했다. 플라스틱 하나가 썩는데 평균 500년, 길게는 1,500년까지 걸린다는데 이 많은 플라스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위기감이 엄습했다.

집에 올라와 환경 보호 방법을 검색했다. ‘용기내 챌린지’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용기내 챌린지는 음식 포장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로 식재료나 음식을 다회용기에 직접 포장해오는 운동이다. ‘용기(勇氣, courage)’를 내서 ‘용기(容器, container)’에 음식을 포장한다는 뜻을 담았다.

기자도 용기(勇氣)를 내봤다. 집에 있는 작은 다회용기 하나를 꺼내 나섰다. 처음 도전한 곳은 용기내 챌린지의 가장 낮은 난이도라 불리는 김밥집이었다. 소풍날이면 아이들의 알록달록한 도시락통을 채워주는 곳인 만큼 비교적 쉽게 “제 그릇에 포장해주세요”라는 말을 건넬 수 있었다. 김밥집 사장님도 많이 해본 듯한 솜씨로 김밥을 깔끔하게 담아주셨다.

두 번째 도전은 난이도를 조금 높였다. 평소 즐겨 먹는 치킨집으로 향했다. 퇴근길 가게에 전화해서 개인 용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다. 요새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받아간다면서 흔쾌히 허락하셨다. 그런데 아무리 집을 뒤져도 치킨 한 마리를 담을 만한 크기의 용기가 보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조금 큼지막한 다회용기 두 개를 챙겨 가게로 갔다. 다행히 용기 두 개에 치킨이 보기 좋게 담겼다. 이 외에도 빵, 아이스크림, 고기, 타코야끼 등의 음식을 살 때도 도전했다. 한 번이 어렵지 하다 보니 일상이 되었다. 가게 사장님들도 개인 용기 사용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기분 좋게 응해주셨다.

성공적인 용기내 챌린지를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한다. 음식의 양보다 집에 있는 용기의 크기가 작으면 용기를 2~3개로 나눠 가져가도 좋다. 소분해서 담으면 몇 끼 나눠 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이나 찌개 종류는 플라스틱 다회용기보다 냄비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 비조리 상태로 음식을 받아오면 기호에 맞게 직접 조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배달 앱에서 포장으로 주문해도 리뷰이벤트(사용후기를 작성하면 서비스를 주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불편한 용기 ‘면 생리대’

가임기의 여성들은 평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생리를 한다. 여성들이 완경까지 사용하는 생리대가 약 1만1,000개에 이른다. 그런데 일회용 생리대가 환경을 오염시킨다. 여성환경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생리대가 연간 20억 개 정도다. 이렇게 버려지는 일회용 생리대는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생리대를 땅에 매립하면 자연분해 되기까지 45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소각 과정에서는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 등의 독성 성분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다.

일회용 생리대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시중에 많이 나와있다. 면 생리대, 생리컵, 물에 녹는 생리대 등 환경과 몸을 생각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 하지만 간편하고 위생적인 일회용 생리대를 포기하기에는 고민이 많다. 그래도 환경을 위해 그 불편을 감수해보기로 했다. 기자는 면 생리대를 선택했다.

면 생리대를 사용하기 전에 걱정이 정말 많았다. 혹시나 생리혈이 새서 옷에 묻지는 않을지, 속옷에 면 생리대가 잘 고정이 될지 등 기능적인 면부터 생리혈이 묻은 생리대를 직접 세탁해야 한다는 부담까지 며칠을 고민했다.

막상 시도해보니 생각보다 괜찮았다. 우선 면 생리대에 똑딱이 단추가 달려있어서 속옷에 고정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친환경 소재의 방수면과 이중샘방지선 등으로 생리혈이 샐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세탁도 생각만큼 힘들지는 않았다. 면 생리대 전용 세제나 과탄산소다를 이용하면 얼룩 없이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다. 면 생리대도 일회용 생리대처럼 양이 많은 날, 보통인 날, 적은 날에 따라 사이즈를 바꿔 사용할 수 있다. 밤새 뒤척임에도 끄떡없는 오버나이트 사이즈도 있다.

면 생리대나 생리컵 등을 사용하고 싶은데 집에 일회용 생리대가 너무 많이 남아 고민이라면 취약계층 여자 청소년들에게 기증할 수 있다.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당장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

낯선 용기 ‘고체 샴푸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등 세정용 화장품에 의한 환경오염도 심각하다. 샴푸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계면활성제가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계면활성제는 쉽게 말해서 서로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분자물질이다. 이 물질이 물에 들어가면 분해되고 정화되기까지 정말 많은 산소와 시간이 필요하다. 샴푸를 담는 플라스틱 용기도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익숙한 액체 샴푸 대신 고체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을 살리는 좋은 방법이다. 고체 샴푸는 액체 샴푸를 비누 형태로 만든 것이다. 대부분 다시마 추출물, 바오밥나무 오일, 페퍼민트 오일, 월계수잎 오일 등 천연재료를 원료로 사용한다.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고, 자연분해가 쉬워 환경오염 부담이 없다.

처음에는 고체 샴푸바가 익숙하지 않아서 걱정했다. 과연 액체 샴푸만큼 거품이 잘 나는지, 머리카락 기름기는 잘 없어질지 기능적인 면도 걱정했다. 그런데 사용해보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면서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제품이다. 벌써 4개째 사용하고 있다. 액체 샴푸만큼이나 거품이 보글보글 잘 생긴다. 잔여감은 전혀 없다. 플라스틱 용기 대신 비누받침대나 비누망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나올 염려도 없다. 지성모, 극손상모, 두피각질, 두피열 등 모발상태에 따라 제품을 골라 사용할 수도 있다.

고체 삼푸바가 너무 좋지만 지금 당장 사용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무작정 새로운 제품을 사면 기존에 쓰던 제품이 불필요한 쓰레기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을 끝까지 사용하는 동안 내게 잘 맞는 친환경 제품들을 고민하며 찾아보면 좋겠다.

이 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이 다양하다. 장바구니 사용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중고거래하기, 회사에서 개인 수저 사용하기, 일주일에 한 번 도시락 먹기 등이 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면 정말 좋겠다.

20210606-1347□-□□-1_□□□□□ 21. 6. 4. □□ 6:41 Page 7

전문가 기고

크리스천과 가상화폐 투자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

내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을 접했던 때가 2016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원 전후였으니 지금 가격과 비교하면 50배 이상 치솟았다.

가상화폐 시장은 장 마감이 따로 없다. '디지털 금'이니 '미래의 지급수단'이니 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많은 알트코인(잡코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24시간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코인에 열광하는 이유

'금'은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화폐수단이었다. 화폐와 교환이 가능했던 금본위제도에서 금의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전쟁 비용을 마련하느라 너무 많은 돈을 찍어냈고, 결국 파운드화를 가져와도 바꿔줄 금이 없다며 금본위제도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코인을 디지털 금에 비유하는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한정된 수량만 채굴할 수 있어서 금처럼 희소가치가 높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많은 알트코인들이 무작위로 발행되고 있고, 가격변동성 역시 온스당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금과 다르게 하루에도 아니 몇 시간 만에도 등락의 폭이 몇십 퍼센트를 오가고 있다. 이러한 코인의 특성에 더하여 주요국들이 달러를 비롯한 기축통화의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최근 몇 년 사이 주식, 코인,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이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이 '나만 이 상승 랠리에서 소외되면 어쩌나'하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투자금 대비 100%만 올라도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전통자산인 주식과 부동산과 다르게 코인은 한 달 아니 단 며칠 만에도 원금 대비 2배, 3배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대출을 이용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 투자)로 코인판에 뛰어들고 있다. '돈복사기'(돈이 복사될 정도로 쉽게 돈을 번다)라는 신조어처럼 너도나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 아래 '묻지마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잠 21:5).

이 말씀을 코인투자에 대입해서 설명하면 "부지런하게 내 본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시간에 투자하는 것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가즈아!'(도박이나 투자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표현하는 감탄사)를 외치며 조급하게 돈을 불리려는 자는 궁핍해진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코인시장은 동전 던지기 게임과 같다

만약 당신이 1만 원을 들고 카지노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1만 원을 개당 100원 칩 100개로 바꾸고 게임을 즐긴 다음 200개의 칩을 획득했다. 칩 200개를 돈으로 바꾸고자 카지노 환전소로 갔는데 환전소 직원이 "불과 2시간 만에 칩 가격이 반토막이 돼서 칩 1개당 가격이 0원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원금 1만 원은 그대로 받을 수 있겠지만 아마 다시는 카지노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지금 코인시장이 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코인시장을 필자는 도박판에 빗대어 '코인판'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지금의 코인판을 도박판이라고 보는 사람의 시각이 많다. 지금 코인판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 본인들이 건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집약체와 미래가치로 보고 정상적으로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고, '가즈아 문화'가 만들어낸 인생한방주의, 일확천금주의가 코인판을 휩쓸고 있다.

그렇다면 코인판은 어떤 종류의 도박판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기고 질 확률이 50%인 동전 던지기 게임과 같다. 한쪽이 다 따면 다른 일방은 다 잃는 제로섬 게임(승자의 득점과 패자의 실점의 합계가 영(0)이 되는 게임)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코인가격이 오르고 내리는지를 어느 누구도 맞힐 수 없기 때문이다.

워렌 버핏 같은 많은 가치투자자들이 코인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로 드는 공통된 근거가 현재 개별 코인가격이 비싼지 저렴한지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동전의 앞면(상승)과 뒷면(하락) 중에서 어느 쪽에 배팅할지 결정하는 유일한 방식은 소문과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가 도지코인의 '도지파파'를 자처하면서 트위터에 도지코인을 띄우면 급상승하고,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 결제를 인정했던 때와 말을 바꿔 결제를 불허한다고 하자 또다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크리스천들이 꼭 기억했으면 한다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자주 묵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탐욕이고, 우상임을 말이다.

보호장치 마련되고, 투명한 시점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 검증된 가상화폐 투자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 없다."

얼마 전 암호화폐 시장을 투기로 규정한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MZ세대들이 금융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2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한다. 2030세대뿐만 아니라 중년에 이르기까지 코인투자 광풍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러한 코인투자에 대해서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보면 안 하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의 코인시장은 돈 놓고 돈 먹기에 가까운 도박판에 가깝기 때문이다. 24시간 장 마감도 없이 돌아가는 급격한 시세 변동 속에서 자칫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소액으로 나마 코인투자를 해보았던 경험에 의하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코인을 묵상하는 모습을 발견했었다.

무엇보다 코인은 가치를 알 수 없다. 모든 물건은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 잡화점에서 파는 가방과 백화점 명품점에서 판매하는 명품가방은 겉보기에는 똑같은 가방이지만 그 안에 숨겨있는 가치가 다르다. 소비자는 그 가치에 따라 거금을 기꺼이 지불하고 구매한다. 주식도 부동산도 그에 합당한 가치가 있고, 현재 가격이 지나치게 거품이 껴있다면 언젠가는 가치 수렴한다. 하지만 코인은 그렇지 않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비싼지 저렴한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자산들이 저명인사의 말 한마디에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겠지만 코인시장처럼 극심한 가격 등락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글을 읽고 그래도 나는 코인에 투자해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고, 세금부과가 이루어진 투명한 시점에 투자할 것을 조언하고 싶다. 추후에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었을 때,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고, 인가된 거래소에서 '알트코인'이라는 잡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검증된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권하고 싶다. 빚투를 하거나 결혼자금, 노후자금 등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할 자금이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여유자금으로 소액으로 투자하기를 바란다.

크리스천들이 꼭 기억했으면 한다.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자주 묵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탐욕이고, 우상임을 말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시 1:1~2).

이주호 팀장
(결혼예비학교 재정강사)

20210606-1347□-□□-1_□□□□□ 21. 6. 4. □□ 6:41 Page 8

멘토님, 알려주세요 "라떼는 말이야"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

"내년 2월 졸업예정인 대학생입니다. 대학교 마지막 학년이라 그런지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아무래도 신앙생활이나 교회 활동보다 학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순예배 준비도 많이 못 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못 갖고 있습니다. 학업과 신앙생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요?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학업도, 취업 활동도, 신앙생활도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멘토님!"

취업을 앞둔 학생들의 심리적, 물리적 압박감은 자못 크다. 취업난이 심한 데다 올바른 진로 모색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졸업이 다가오면서 취업 준비로 바쁘다 보니 학업과 신앙생활을 병행하기 쉽지 않아서 마음의 평안과 여유가 사라지는 듯하다. 학업수행과 신앙생활의 관계 정립에 대한 크리스천 대학생들의 고민에 기꺼이 동참하며 올바른 길을 모색하는데 동행하기를 원한다. 각자의 처지를 합리적으로 파악하면서도 모든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원칙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우선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 학업과 신앙생활 사이의 갈등을 하나님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신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힘든 상황과 고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를 바라시고, 해답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의 진로와 취업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시고, 신실한 인도하심을 보여주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이 학업과 신앙생활의 관계를 이해하는 영적 토대다.

학업과 신앙생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 양적이고 기계적인 균형보다 질적이고 영적인 균형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균형은 우선순위와 집중력의 지혜에서 비롯된다. 학업과 신앙생활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의 탈피로부터 나온다. 이를 간과한 양적인 균형은 정말 바쁜 것이 아니라 바쁘다고 느끼거나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올바르게 해소하지 못한 불안감에서 나온 해법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학업과 신앙생활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에 조금 더 정직할 필요가 있다. 순예배 등 신앙 활동을 줄여서 확보한 시간이 취업과 진로에 대한 생산적인 활동과 결과로 이어지기보다 더 많은 갈등과 방황을 만들어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유혹이자 덫이 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준비, 신앙생활의 진정한 균형은 둘 다 최선을 다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상황마다 합리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행동해야 하겠지만, 둘 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모든 상황을 관류하는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서 찾을 수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이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성경적 지침이다. 학업과 취업, 신앙생활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어느 한쪽을 소외시키기보다 서로에게 녹아있고, 서로를 지탱해 주는 모델이 바람직하다. 스펙 쌓기와 취업 활동은 그것의 목표와 방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엮어질 때 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학업과 신앙 활동, 스펙 쌓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긴밀하게 수렴되기에 배분적 최선이 아니라 합일적 최선을 향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니엘의 평생을 지탱해 온 능력과 지혜는 합일적 최선의 열매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자 선물이다. 자기중심적으로 과정을 전개하고 결과 획득을 기대하면 자칫 조급해져서 방향을 놓치거나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하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하느냐에 무게중심을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취업을 앞둔 대학 생활이 주는 갈등적 압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고, 예배와 학업, 취업 준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적 힘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막연히 많은 사람이 가는 취업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각자의 재능에 맞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 학업과 취업 활동, 신앙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으로 가게 해준다.

대학 생활의 마지막 학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다. 학업과 신앙생활이 최고조의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보내느냐가 엄중한 시점이다.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각인시킬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앞으로 다양한 선택과정에서 굳건한 지침이 될 만한 영적 기반을 마련하는 소중한 훈련 기회이기도 하다.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믿음의 결단과 상상력을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종우 장로
(Pole2청년부 멘토)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긍정적인 면도 함께 인식하기!

"결혼한 지 30년 넘은 주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혼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남아 글을 남깁니다. 연차가 깊은 부부들은 정으로 산다지만 요새 남편만 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제게 상처 줬던 말과 행동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남편을 만난 제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날 장거리 운전을 했다. 종일 운전하면서 도로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그날따라 많은 경험을 하고 집에 왔는데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다. 집에 도착할 즈음 어떤 차가 무례하게 뒤에서 심하게 경적을 울렸기 때문이다. 화나고 기분 나쁜 감정이 강하게 올라왔지만 마음을 짓눌렀다. 분명 그날 운전했던 모든 과정을 생각해보면 상쾌한 경험이 있었다. 신나는 드라이브라는 느낌에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느낌도 있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따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도 했었다. 그런데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을 때는 무례하게 뒤에서 경적을 울렸던 어떤 차로 인해 매우 불쾌한 기분만 남아있었다.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무례함을 돌려주고 싶은 불안정한 정서가 내 마음에 가득했다. 분명 좋은 경험과 기억들이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한 가지 불쾌한 사건에 고착되었다. 헤어 나올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의 늪에 빠져버렸다. 그 불쾌한 감정은 최악의 하루였다는 결론을 내리게 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부정적 고착의 경험을 한다. 부부는 결혼하고 신혼을 보내고 자녀를 출산하고 함께 살아오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경험한다. 사람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혼 때는 행복함과 친밀함이 주는 기쁨을 누린다. 신혼기를 지나면서 부부는 특별하고 다양한 경험을 한다. 그 경험에는 행복한 경험도 있지만 힘들고 괴로운 경험도 포함된다.

원만한 부부라면 부부관계에 있었던 어려운 기억과 경험들을 잊어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지"라면서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나 심리적 취약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부관계에서 좋지 않았던 경험이 기억의 창고에 그대로 저장되고, 그 기억에 고착되어서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부부관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부정적 사건에만 고착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한다. 배우자와 심하게 다투던 날, 심하게 화내는 모습, 자신에게 고함지르는 모습, 눈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경멸, 무시, 무례함, 몸을 밀침, 물건을 던짐 등의 장면과 상황이 자신의 감정과 인지적 경험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사실 언어로 저장되는 것보다 그 외의 것들로 전달되는 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제스처, 목소리 톤, 느낌, 태도 등이다. 부부관계에서도 말보다 그 외의 행동들이 포괄적으로 기억된다고 할 수 있다. 부부싸움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강력하게 각인된 부부의 극렬한 갈등 사건에 고착되어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인지적 왜곡을 하기도 한다. 결혼 생활 전체를 균형 있게 평가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건만 단편적으로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오류를 범한다.

인지왜곡(cognitive distortion)은 현실에서 겪는 일에 대해 왜곡해서 인식하게 하는 부정적 사고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은 한 개인이 불행감을 느끼거나 정서적 불편감, 대인관계에서의 곤란함을 겪게 한다. 단편적인 것만 보고 전체를 평가하고 결론 내리는 것을 선택적 추상(selective abstraction)이라고 한다. 선택적 추상은 단편적인 부정적 사건만 뽑아내서 전체를 평가하는 인지 오류를 말한다. 부부의 결혼 생활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심하게 갈등을 경험했던 배우자와의 부정적인 사건만 가지고 결혼 생활을 절망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부부관계에서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부부라면 부정적인 사건과 상황에 고착되지 말고 부부관계의 긍정적인 면도 함께 인식하면 좋겠다. 긍정적인 기억과 경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부부관계의 긍정 에너지를 키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정도면 우리 부부 잘 살고 있지!", "비록 다른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배우자라는 사실은 틀림없어!", "비록 갈등을 겪지만 잘 회복할 수 있을 거야", "행복한 때도 많잖아!" 등으로 결혼 생활을 바라보고, 자신과 배우자를 수용하면서 인지의 긍정성을 키우면 유익하다.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상담센터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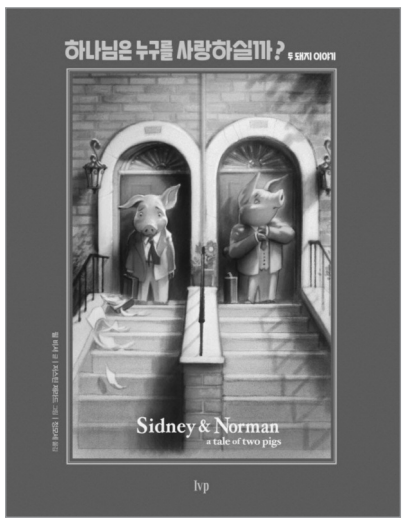
적용: 1. 가족사진을 꺼내보고 감사했던 추억 3가지를 나누어보세요.
2. 배우자에게 사과해야 할 일 3가지 정도 생각해보고 용서를 구하세요.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20210606-1347□-□□-1_□□□□□ 21. 6. 4. □□ 6:41 Page 9

책 읽어주는 목사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
필 비셔 저 | IVP | 10,000원

누군가 나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복음은 율법주의와 은혜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신앙의 여정은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부단한 싸움의 연속이다.

신앙상담의 결론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처럼 분별이 필요한 말이 없다. 이 말은 스스로의 율법적 의를 강조하기 쉽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며 부패하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과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복음의 본질이 가려지기 쉽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이 사랑에 담긴 깊은 영적 충격이 하나씩 곱씹어질 때 진정한 은혜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율법주의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도 고민되는 부분이다. 아이가 잘하면 칭찬하고, 부족함이 보이면 조언하고, 잘못을 바로잡는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자녀가 교만해지기 쉽다. 후자의 경우 자녀는 자존감이 낮아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전자는 당연히 여겨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후자는 자신에게 임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아내와 나는 계속 고민해왔다.

지난 어린이날 자녀들의 선물을 사러 서점에 들렀다. 유치원생 둘째의 선물을 고르다가 동화책 한 권을 발견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두 돼지 이야기〉라는 원색적인 제목과 양복을 입은 두 돼지가 있는 예쁜 표지를 보면서 과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졌다.

착하고 훌륭한 돼지 노먼과 실수투성인 시드니가 이 책 주인공이다. 어느 화창한 가을 아침 두 돼지의 집 앞으로 하나님의 초청이 담긴 하늘색 편지가 도착했다. 노먼은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노먼을 맞아주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다. "첫째,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둘째, 네가 착하고 훌륭하기에 너를 사랑하는 건 아니란다", "셋째,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착하고 훌륭하지 않단다. 너는 교만에 빠져있어. 너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이들도 사랑한단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네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셨다. 노먼은 '이게 상인가?'라고 생각하며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시드니는 어디든 숨고 싶은 마음으로 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와 줘서 기쁘구나"라고 웃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리고 세 가지 말씀을 하셨다. "첫째, 나는 너를 사랑한다", "둘째,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셋째,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시드니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보았던 따뜻함을 마음속에서 다시 느끼고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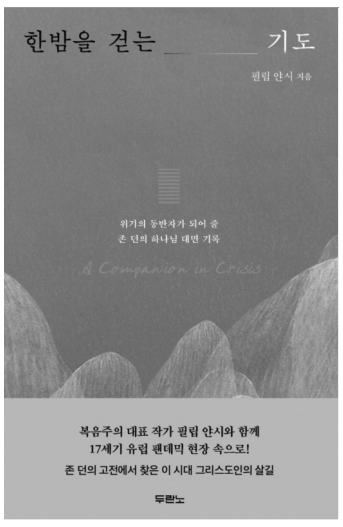
저자는 우리 모두가 노먼이고, 시드니라고 설명하면서 '착한 돼지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당신이 노먼이라면 "한순간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민감한 새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간구하라"고 말한다. 또한 당신이 시드니라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온화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달라고 간구하라"고 권면한다. 모두가 깨지고 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준비가 된다.

집에 와서 둘째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는 표현이 마음에 들었나보다. 잠들기 전에도, 유치원을 가면서도,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도 웃으며 노래하듯 읊조린다. 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기도를 드렸다. 우리 모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과정에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 진리가 희미해지지 않기를 원한다. 매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라. 자녀들에게 세상의 원리나 부모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치라.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들이다.

변대섭 목사
(성북공동체)

두란노 신간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갈 수 있을까?



〈한밤을 걷는 기도〉
필립 얀시 저 | 두란노 | 15,000원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길고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다. 정상적인 삶이 멈춰 버린 나날들 속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갈 수 있을까? 그 답이 〈한밤을 걷는 기도〉에 쓰여 있다.

〈한밤을 걷는 기도〉는 17세기 영국 최고의 시인이자 탁월한 설교가였던 존 던의 병상 기도 일기 〈비상시의 기도문〉을 바탕으로 쓰였다. 〈비상시의 기도문〉은 17세기 유럽을 초토화한 흑사병에 걸린 존 던이 병상에 누워 사람들의 죽음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써 내려간 적나라한 기도일기다.

저자 필립 얀시는 존 던의 사색을 토대로 〈한밤을 걷는 기도〉를 집필했다. 이 책에는 존 던의 기도일기 스물세 편이 수록되어 있다. 존 던의 배경 일부를 설명하는 일곱 편의 글도 추가되어 있다. 저자는 검증된 고전을 이 시대 언어로 어렵지 않게 풀어냈다. 존 던의 사색을 묵상 형태의 글로 정리해서 하루 한 편씩 읽을 수 있도록 편집했다. 담담한 문체의 묵상 글을 하루하루 읽다 보면 고통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 고난을 헤쳐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위기 속에서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국 최초의 목회자 '양발'

양발(梁发, 1789~1855) 목사는 중국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의 동역자였다. 로버트 모리슨은 중국어 성경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양발 목사를 만났다. 1816년 당시 인쇄공이었던 양발은 27세에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었다. 크리스천이 된 양발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향으로 갔다. 1819년 고향에서 〈구세록촬요약해(救世錄撮要略解)〉라는 전도 서적을 만들어 배포하다 체포되어 죽도록 매를 맞고 벌금 70여 원(집 1채 값)을 냈다. 선교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출옥할 수 있었는데 집은 주민들의 방화로 불타버려 돌아갈 곳이 없었다. 이후 선교사의 도움으로 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아내에게 성경 활용법을 가르치고, 아들에게 유아세례를 받게 했다. 1822년 광저우로 돌아온 양발 목사는 중국어 성경 출판을 도왔고, 1823년 마카오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중국인이 서양인들에게 종교 전도를 위탁받거나 세례로 이름을 바꾸는 등 치안을 교란케 하는 자는 엄중히 다스려 극형에 처한다."

중국 정부의 서슬 퍼런 감시 속에서도 양발 목사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중국 정부가 감시하는 요주의 인물로 수차례 고난을 겪었지만 그의 신앙은 꺾이지 않았다. 양발 목사는 아편전쟁 이후 합법적인 전도가 가능해졌는데도 끝까지 기독교를 배척했던 하남에서 복음을 전하다 소천했다.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접목'

만져지지 않아도
닿으려 손을 내민다
마음과 혼을 다하리
접목되어 하나되려고

별을 띄우려
꽃을 피우려
안 보이는 데로
날아 들어가지

접목은 동경
접목은 기원
붙여 줄 줄로 믿고
모두를 맡기지

20210606-1347□-□□-1_□□□□□ 21. 6. 4. □□ 6:41 Page 10

코로나19, '공동체'와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강남D공동체 '위로(We:路)의 시간'

나의 꿈과 목표 그리고 나눔

얼마 전 강남D공동체에서 권사와 순모를 위로하는 온라인 모임이 있었다. '위로(We:路)의 시간'이다. 위로를 주고받는다는 뜻도 있고,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의미도 있다.

나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네 살 때부터 엄마와 외갓집에서 살았다. 외할아버지는 가정교회를 시작으로 그 지역에 처음 교회를 세우신 분이다. 외갓집에서 지내는 동안 매일 가정예배와 주일학교를 빠지는 일이 없도록 나를 훈련시키셨다. 어린 마음에 귀찮기도 했던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 믿음의 유산이 되었다. 대학 때부터 출석하던 교회 청년부에서 남편을 만났다. 남편의 직장 이동으로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 왔다. 남편의 고등부 교사였던 도육환 목사님의 소개로 온누리교회에 등록했다.

온누리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조금 달랐다. 처음 받아 보는 일대일제자양육, 우연한 기회로 맡게 된 순장과 순모, 다양한 OBC 프로그램까지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교회 일이라면 열정적으로 나서는 장로님과 권사님, 다락방장님과 순장님, 순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교사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어린 시절 엄마와 나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의 직업이 교사였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가정형편과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대구교대에 진학했다. 2년 동안 짧지 않은 방황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참관수업에서 아이들과의 만남이 내 마음을 헤집어 놓았다. 하나님께서 맑은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셨고, 귀한 생명을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다. 그때부터 열심히 교사생활을 했다.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화가 나고 미워질 때가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아이들을 통해 나를 다듬어 가셨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생명으로 보게 하셨다.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아이들이 가진 마음의 상처가 궁금해지기도 했다. 그때부터는 잘 가르치겠다는 마음보다 내게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더 많이 안아주고 위로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그 직업조차 싫었던 나에게 또 다른 아버지께서 그 자리를 사랑하게 하셨다.

강남D공동체 권사와 순모들이 '위로(We:路)의 시간'을 마련해서 서로 비전과 신앙을 나눴다.

얼마 전 탤런트 신애라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다. 시간이 흘러 천국에서 하나님을 독대할 때 어떤 종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이었다.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내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다. 나는 과연 어떤 종의 모습인지 돌아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가르치는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내게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해서 나의 주인께 기쁜 마음을 돌려드리는 것이 나의 꿈이자 목표가 되었다.

내가 살아 온 이야기와 비전, 사명을 강남D공동체 권사님들과 순모님들께 나눴다. 내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격려해주시고, 칭찬해주시는 분들도 계셨다. 함께 기도하겠노라고 약속해주시는 분들도 계셨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권사님들과 순모님들의 마음이 너무 따듯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권사님들과 순모님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 박영란 순모(강남D공동체)

코로나19, '사역'하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코로나19 긴급구호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레바논 정세는 좀처럼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19년 10월 17일 경제위기로 인한 시위가 시작되었고, 대중들이 총리 퇴진을 요구했다. 새로운 총리가 임명되었는데도 내각 구성을 하지 못하고 이전 총리가 다시 취임했다. 시위가 시작되고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기 대통령 선거를 하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레바논의 정세 불안요인이 화폐가치를 떨어뜨리고, 물가는 기존 물가 대비 3~4배나 상승했다. 더이상 레바논에서는 유럽에서 생산되는 전지분유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와 남미에서 생산된 분유만 수입하고 있다. 레바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레바논 국민들이 빈민이 되어버렸다. 레바논 전체 국민의 60%가량이 극빈층이 되면서 외부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난민에게만 국한되었던 코로나19 긴급구호사역을 레바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사역이 대폭 확대되었다. 레바논 시의원이 "당신들이 난민들을 돕는 것처럼, 레바논 극빈층을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레바논 국민들에게도 코로나19 긴급구호사역을 하게 되면서 100가정에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었다. 그동안 도움을 받지 못했던 레바논 국민들이 무척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있다.

그동안 사역이 제한됐던 레바논 국민들에게도 복음과 구호품을 전달하게 됐다.

이번 코로나19 긴급구호사역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코로나19 긴급구호사역 지원대상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모임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많은 여성들이 모였다. 금요일 저녁 열리는 남성 모임에는 레바논 사람들이 주로 참석하고 있다. 1층 작은 점포를 교회 난민센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모임 참가자가 갑자기 늘면서 더 넓은 장소에서 모임을 하게 되었다.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레바논 사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의 은사를 나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베이루트 폭발이 일어난 캐런티나 지역은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컨테이너 하역시설이 있어서 많은 컨테이너 트럭들이 들어오는 지역이다. 시설 안에 모스크도 있다. 이번 코로나19 긴급구호사역에서 레바논 무슬림 3가정을 지원했다. 지원을 받은 무슬림 아주머니가 우리 부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기도 했다. 그동안 레바논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악화한 경제 상황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돕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살림살이라고는 스펀지 매트리스 몇 개가 전부인 주민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자동차가 베이루트 폭발로 파손되어 매일 일을 찾아야 한다. 난민들도 매우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경제난으로 일거리를 찾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난민들은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감을 찾아야 하는 형편이다. 가정마다 떡과 복음이 전달되어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를 소망한다. 우리의 사역이 그들을 인도하기를 소망한다.

/ 강충성 선교사(레바논)

20210606-1347□-□□-1_□□□□□ 21. 6. 4. □□ 6:41 Page 11

대학청년부 '배남프(배워서 남 주자 프로젝트)' 교육 봉사자와 선교사 자녀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대학청년부 '배남프' 교육 봉사자 모집

선교사 자녀들에게 온라인으로 교육 서비스 제공

대학청년부에서 '배워서 남 주자 프로젝트'(이하 배남프)에 참가할 교육 봉사자를 모집한다. 배남프는 크리스천 교육 봉사자들이 교육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하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온라인으로 일대일 교육을 해주는 튜터링 프로젝트다.

배남프 수업은 10주 과정이다. 주 1회(최대 2회)가 원칙이다. 활동 기간은 8월까지다. 배남프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목은 유치부 한국어, 책 읽기(기본과정 교재 선정), 초등부 국어, 수학, 과학, 한국사, 영어, 음악, 중고등부 국어, 수학, 과학, 한국사, 영어다.

배남프 교육 봉사자 신청은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 출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허입과정을 통하여 선별하고, 2주의 교육을 받고 수업을 시작한다. 교육 봉사자에게는 온라인 수업 기구가 제공되고, 봉사활동 시간도 준다. 신청은 배남프 홈페이지(onnuribnp.com)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570-7521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여성가족부 차관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 방문

한국어 수업 참관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격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달 5월 28일(목) 경기도 화성시 발안읍에 위치한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을 방문했다.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을 격려했다.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은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최우수기관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주관하는 이주민 청소년 대안학교 레인보우스쿨, 진로상담서비스, 한국어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정희 선교사(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영선 기자

작은 기쁨이 되었으면…

온누리교회 미술선교팀 온누리아트비전이 서빙고동 기찻길 건널목 벽화를 보수했다. 온누리아트비전 이미란 팀장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주민들에게 작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신문 작품 모집

차세대 글, 시, 그림 등 이메일 접수

온누리신문에서 6월부터 어린이신문 코너를 시작하면서 차세대들의 작품을 모집하고 있다.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들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작품을 보낼 때는 짧은 작품 소개(A4용지 2~3줄 분량),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함께 보내야 한다.

차세대들이 보내준 작품은 온누리신문 어린이신문 코너에 게재되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보내준다. 온누리교회 소속 차세대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 홍하영 기자

CGNTV 시청자 모니터단 모집

6월 2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CGNTV 시청자 모니터단을 모집한다. 6월 20일까지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CGNTV 시청자 모니터단으로 선발되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TV와 유튜브 채널 콘텐츠 1편씩을 시청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매주 보고서와 월간 비대면 모임을 할 예정이다.

문의: 02-3275-9518

/ 김영선 기자

수원 차세대 청소년예배집회 '리:얼라이브' 개최

지난달 22일(토) 온누리교회 수원 캠퍼스 본당에서 차세대 청소년예배집회 '리:얼라이브(Re:Alive)' 예배를 드렸다. 청소년, 부모, 교사, 청년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청소년예배집회 '리:얼라이브(Re:Alive)'는 수원 차세대 파워웨이브와 His청년부가 연합해서 다음세대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기획한 예배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온누리교회 수원 캠퍼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故 채명준 장로 저서 출판감사예배

지난 6월 2일(수) 故 채명준 장로 저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짧은해설〉(영음사) 출판감사예배를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드렸다. 김학유 총장(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메시지, 안상혁 교수 본서의 의의, 이재훈 목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故 채명준 장로(인천 송월교회)는 한양대 화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故 김영길 장로(한동대학교 명예총장)와 함께 '창조과학회'를 설립하고 창조과학 증명에 앞장서기도 했다.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 157기 참가자 모집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 15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6월 11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 등을 주제로 5주 동안 강의가 이어진다. 회비는 10만 원.

문의: 010-3135-2865

'온누리M온라인포럼' 개최

6월 26일 오전 10시 유튜브 채널

온누리M미션에서 '온누리M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 6월 2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온누리M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뉴노멀(New Normal)을 한국 교회와 나누는 시간이다. 온누리M온라인포럼에서는 10가지 주제(전도, 예배, 양육, 동원, 협력사역, 아웃리치, 이슬람선교, 스마트선교, 교육선교, 비즈니스선교 등)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 김영선 기자

NGO 더멋진세상 남수단 보건소 준공

케세리 마을 300가구 주민 2,500명 이용

NGO 더멋진세상이 남수단 케세리 마을에 보건소를 준공했다. 케세리 마을 300가구 주민 2,500명이 이용한다.

남수단 케세리 마을 보건소 준공은 인카네이션문화예술재단이 건축비를 지원하고, 남수단 장로교단이 부지를 기증했고, 케세리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NGO 더멋진세상은 케세리 마을 의료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들에게 모기장 150개도 배급했다. 의료진 인건비, 추가 약품, 담장 설치 등의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정은희 선교사는 "날마다 발전하는 케세리 마을을 보고 주변 마을들과 남수단 전체가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김영선 기자

How Mission 참가자 모집

How Mission 총체적 선교스쿨 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6월 12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How Mission은 '총체적 복음', '총체적 관점과 총체적 선교 소개', '세계관과 총체적 선교의 원리', '총체적 선교의 실재 실습', '총체적 아웃리치 기획' 등을 주제로 5주 동안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7336-6094

20210606-1347□-□□-1_□□□□□ 21. 6. 4. □□ 6:41 Page 12

▌세례 간증

온비와 하나님

/ 신유진 성도(찬양공동체)

나는 자가면역질환 루푸스를 앓고 있다. 결혼 전부터 의학적 지식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어쩌면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남편에게도 결혼 전에 내가 어쩌면 아이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남편은 결혼해서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다. 사정을 이해해주는 남편에게 항상 고마웠다.

어느 날 '온비'가 와주었다. 정말 감사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허락해 주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감사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온비가 예상일보다 6주 정도 일찍 세상에 나왔다. 죄책감과 좌절감이 몰려왔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커졌다. 2주 정도 인큐베이터에 누워 있는 작은 아이를 보면서 눈물만 흘렸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지 않고 서운한 감정만 쏟아냈던 것 같다.

온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성가대의 귀한 기도 덕분에 건강하게 중환자실을 나왔다. 지금껏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온비가 건강하게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인데 나는 너무 연약해서 감사보다 섭섭함이 강했다. 감사가 어느새 사라지고 육아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피곤을 이유 삼아 지금도 조금씩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다. 유아세례도 미루고 있었다.

문득 내가 온비보다 오래 살 수 없다는 사실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아이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에 남겨질 아이에 대한 걱정이 생겼다. 그러면서 온비와 언제나 함께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해주심을 의지하게 되었다.

온비를 핑계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 한다. 내게 허락해 주신 너무 귀한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린다.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바르게 키우고 싶다. 온비를 통해 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통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큐티스쿨 수료 간증

깊은 눈물 알게 하시는 하나님

/ 권준규 성도(서대문공동체)

내게 큐티스쿨은 미뤄두었던 숙제 중 하나였다. 무슨 일이든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는 '신앙생활을 한 세월이 얼만데 너무 기본적인 내용 아닐까?'라는 교만이 있었다. 그러나 그 기초는 너무 중요한 '반석'이었다. 튼튼한 기초 위에 바르게 집을 지어야 하듯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데 있어서 가장 튼튼한 기초와 기둥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큐티스쿨 수강을 기준으로 내 삶이 달라졌다. 말씀을 대충 읽고 본문해설로 바로 넘어갔던 모습에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묵상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이 너무 재미있었다.

내가 큐티스쿨을 수료하는 동안 〈생명의 삶〉 본문이 출애굽기였다. 이집트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중노동으로 신음하고, 고통과 고난을 겪는 장면이었다.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응답은 왜 우리의 기도와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걸리는지, 부르짖어야 들으시고 울부짖어야 겨우 하나님께 이르는 것인지,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그 뜻이 궁금하기도 했다. 이 의문이 마지막 독후감 과제를 하면서 해답을 찾았다.

눈물과 통곡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며, 드라마를 보면서 흘리는 눈물과 다르다. 통곡의 눈물은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애통하는 사람만 흘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얕은 눈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애통해하고 통곡하는 깊은 눈물을 원하시는 게 아닐까. 더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그리워하는 깊은 눈물을 알게 하시려는 것 아닐까.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

큐티는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 교제 시간이다. 큐티스쿨을 수료하면서 성경 말씀이 더 잘 보이게 되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재미가 크다는 것도 경험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경기A공동체에 보내는 편지

북암교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정순일 목사
(북암교회)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 자락 북암마을에 있는 북암교회 정순일 목사입니다. 북암교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북암교회가 자리한 북암마을은 법주사라는 큰 절의 영향 아래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에 암자가 두 군데나 있어서 주민 대부분이 절에 나가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으로 물 좋고 공기 좋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데, 영적으로는 어둡고 기도가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지난해 겨울, 작은 시골 교회인 북암교회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택 수도관이 동파로 인해 파열되어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누수 피해가 교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동네 주민들에게도 발생했습니다. 온 동네가 물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누수 금액과 물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인해 주민들의 항의와 원성이 커져만 갔습니다. 주민들을 한 명이라도 교회로 더 이끌려고 했던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당장이라도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북암교회에 청년이라고는 저의 두 딸뿐이었습니다. 노인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마저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어서 재정적으로도, 인적으로도 공사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온누리교회 경기A공동체 안평A다락방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북암교회 성도님이 경기A공동체 권사님께 연락해서 교회 사정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북암교회의 사연을 들은 권사님이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했고, 의논과 기도 끝에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 돕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모였다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경기A공동체가 보내주신 헌금으로 수도관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사택 보수 공사도 했습니다. 싱크대를 30년이나 사용해서 낡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바닥에 쥐 오물이 가득해 위생상태가 엉망이었는데 교회의 열악한 형편 때문에 그냥 사용해왔습니다. 이번에 수도 공사를 하면서 싱크대를 새 걸로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기적을 더 베풀어주셨습니다. 교회 옹벽 공사도 했습니다. 비가 오면 교회 뒤편 산에서 토사가 내려오면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어서 꼭 필요한 공사였습니다. 북암교회가 세워져 있는 땅은 암반석이 많아서 옹벽 공사를 하려면 포크레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공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옹벽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경기A공동체의 후원으로 공사비가 충당돼 수도 공사와 사택 보수, 옹벽 공사와 진입로 공사까지 했습니다. 오랫동안 앓던 이를 한꺼번에 뽑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을 기적이라고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돕게 해주셨습니다. 북암교회의 공사 상황을 보면서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조차 놀란 것 같습니다. 한 주민이 "북암리 역사상 가장 큰 공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북암교회가 경기A공동체의 도움으로 수도 공사, 사택 보수, 옹벽 공사를 끝마쳤다.

북암교회의 사정을 듣고 도움의 손길을 선뜻 내밀어주신 경기A공동체 성도님들과 이름 없이 후원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북암교회에는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다가올 장마철이 걱정입니다. 열악한 시골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모든 것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0606-1347□-□□-1_□□□□□ 21. 6. 4. □□ 6:41 Page 13

장로칼럼

위대한 교회(The Great church)

박순길 장로
(서빙고공동체,
서빙고 이웃사랑팀)

황사와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지난 5월 8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열심히 선물을 포장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 S브릿지공동체, 브릿지33+공동체 청년들이 '사랑의 상자' 100박스를 포장했다. 동빙고동, 서빙고동, 보광동, 청파동 일대 독거노인 40가정을 방문해서 선물과 카네이션을 전달해드렸다. 나머지 60개는 교회 인근 2개 동주민센터에 기증해 다른 취약가정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부탁했다.

상자 안에는 떡, 햇반 등 반조리식품, 김치, 김, 통조림 등 어르신들이 좋아할 반찬과 간식 등이 가득했다. 식량이 가득한 사랑의 상자를 들고 독거어르신 가정에 일일이 배달하려면 힘겨울 법한 무게였는데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친부모를 찾아뵙는 심정으로 기쁘게 배달했다.

이웃사랑팀은 사회선교부 소속 구제긍휼사역팀이다. 온누리교회가 창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역이다. 원래는 교회 외부의 취약계층을 위한 구제지원, 지역사회를 위한 긍휼사역을 하다가 2013년 12월 실시한 '온누리교회 성도 의식조사'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라'는 성도들의 요청을 듣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용산역 노숙인, 오산고 장학생 지원까지 사역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사역을 중단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리더십들이 기도한 끝에 내린 결론은 "한 달에 한 번 가던 방문을 두 번 가자"였다. 지역사회에 노인들이 갈만한 곳, 쉴만한 곳이 거의 문을 닫았다. 어르신들은 물질이나 선물보다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랑과 정에 굶주려 있다. 종일 휴대폰 벨 한 번 울리지 않고, 볕도 안 드는 골방에 갇혀 TV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답답하고 외롭겠는가? 그래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은 어르신들을 찾아가 관심과 격려를 보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사역까지 급변시키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변화의 중심에 디지털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이 디지털로 종속되고, 온라인 기반의 실시간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수록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할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짐 콜린스는 책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Good to Great)〉에서 "좋은(Good) 것은 위대한(Great) 것의 적"이라고 했다. 많은 기업들이 위험해지는 것이 싫다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좋은 기업은 위대한 기업이 되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망하게 된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교회의 우선순위가 기도와 말씀, 전도와 선교, 이웃에 대한 긍휼, 제자양육이라고 알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온누리교회도 말씀을 가르치고(행 6:4),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는 긍휼사역에 비중을 두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노력해 왔다. 성령 충만한 일곱 집사(행 6:5)가 되어 황무(荒蕪)한 땅에서 구하고 기도했던 선배 성도들의 자취도 잊을 수 없다. 130여 년 전 한국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한국 교회가 성도들을 이끌고, 궂은 일에 앞장섰다. 온누리교회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한 교회로 살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복을 받아 누리는 '위대한(the Great) 교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권사칼럼

나눔의 행복

조은미 권사
(온누리교회
강동캠퍼스)

고향에 살면 단순히 전원생활의 여유와 자연에 사는 유유자적함을 즐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장소도, 사람도 모두 특별한 추억이 있고, 어디를 가나 엄마의 자궁 속 같은 편안함이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여자 동창들은 모두 외지로 출가해서 가까이 있는 친구가 별반 없다. 그에 반해 남자 동창 중에는 은퇴 이후 귀촌한 친구들이 있다. 토박이로 사는 친구들도 있다. 어쩌다 만나면 코 흘릴 적 유년의 그림자를 떠올리며 무람없이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 동창들과 하는 환담이 고향살이에 적잖은 활력이 되고 의지가 된다.

동창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 올린 열무 물김치 담근 글을 보고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고향집에 자주 내려오는 친구다. 집에 있으면 한번 만나자면서 친구와 둘이 놀러 오겠다고 했다. 열무 물김치 자랑을 한 터라 김치 검증도 받을 겸 친구들을 초대했다. 손님이랄 것도 없는 친구들이라 있는 찬에 상추쌈이나 먹자 싶어 오랜만에 반가운 해후를 했다.

엽렵하게도 사 들고 온 콩국에 국수를 삶아 말고, 마침 먹기 좋게 익은 열무김치와 밭의 쌈채소를 뚝뚝 뜯어다 당근 샐러드에 무쳐 간단히 점심을 대접했다. 정말 맛있다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두 사람의 가감 없는 검증에 자신감이 생겨 열무 물김치 한 대접씩 퍼다가 이웃에게 나눴더니 모두 고마워한다. 작은 나눔이지만 이것이 정이고 인심이고 사람 살아가는 재미 아닐까?

이 친구들, 밥값 한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고춧대도 박아주고, 죽은 대추나무 가지도 잘라준다고 나서는 마음 씀씀이가 참 고맙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서로 진실한 마음이 오갈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살맛이 나는 것 같다. 좋은 친구들, 사랑을 나눌 좋은 이웃들이 있어 내 시골살이가 푸근하고 넉넉해진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전원생활이 낭만처럼 보이지만 사람에 정 못 붙이면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이 세상을 사는 이치다. 이웃이나 동네에 넉넉히 인심을 베풀고, 더불어 같은 눈높이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지혜이리라. 내친김에 밭에 널브러진 싱싱한 야채를 뜯어 봉지에 꽉꽉 채워 넣는다. 내일 서울에 올라가서 가까운 이웃들에게 나누면 얼마나 좋아할까? 무공해 야채에 내 땀과 사랑까지 곁들였으니 도시에서 돈 주고 사 먹는 것에 비기랴. 그 웃는 모습들을 떠올리니 마음이 먼저 달린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며 시도 한 편 띄워본다.

보름이 가까우니
둥근 달이 휘영청 밝다.
둥글어진 마음도
보름달이 된다.
뜨락에 내려앉은 달빛 벗 삼아
하모니카 선율에 취해본다.
개구리 소리마저 정겨운
고향의 밤이 깊어간다.
또 하루를 지나는 감사함이
가슴 가득 여울진다.

신앙에세이

반전(reversal)

정장철 목사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살다 보면 누구나 겪는 어려움을 나도 경험할 때가 있다. 그 일 중에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던 일들이 있다. 나는 반전(reversal)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반전이 기억의 영역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다. 내 머릿속에는 그런 경험이 다른 것보다 더욱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다. 이런 이유에서 영화나 소설 같은 창작물에도 흥행을 위해 반전이라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

반전은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때도 역시 우리에게 강한 영향을 끼친다. 반전은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을 흔들고, 심지어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를 줄 만큼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도 많은 반전 사건들이 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그 범위는 영웅들의 파란만장한 사건에서부터 사도들이 적어 보낸 세심한 편지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에서도 반전을 만날 수 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빌 1:12~14).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복음전파를 위해 애썼지만,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다. 그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벽이 될 거라고 예상했다. 바울 사도와 함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내었다. 복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바울 사도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전혀 다른 측면의 반전도 있었다. 이 반전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주는 반전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성경 구절 이후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바울을 괴롭히거나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진 대적자들도 있었다. 이 모습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어떠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 바울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된 결과에만 집중했다. 분노가 아니라 기쁨을 느끼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예상을 깨뜨린다. 자신의 죽음마저 유익이라는 반전 메시지를 준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거기에도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반전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반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될지라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수용한다면 반전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에 없었던 위기를 맞이하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힘든 경험을 하고 있다. 이 답답함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미국도, 내가 사역하는 교회도, 깊은 늪에 빠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이미 거기에 반전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믿음의 사람은 반전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마음껏 사용할 때 자신과 주변에 커다란 울림을 줄 것이다.

"무화과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 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합 3:17~18)

20210606-1347□-□□-1_□□□□□ 21. 6. 4. □□ 6:41 Page 14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십자가에 못 박힌 가정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절대로 신앙이 꺾이지 않게 해 주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양순 사모님은 절대로 신앙이 꺾이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정양순 사모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손양원 목사님의 영적인 기개가 조금도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1년 7개월이 지나면 석방해야 하는데 다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서대문형무소로 이감하게 됩니다. 정양순 사모님이 이감하는 길에서 손양원 목사님을 잠시 만났습니다. 보통 아내 같으면 손양원 목사님을 붙잡고 "이제 그만해도 좋으니 빨리 나오라"고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정양순 사모님은 성경책을 들고 손양원 목사님께 가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b, 개역개정).

"당신이 우상에게 절하고 포기하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충성되게 순교의 길을 가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북돋아 주는 아내의 사랑이 남편을 저주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뛰어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가정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가정

때로 가정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역기능 가정, 상처 입은 가정, 부모로부터 올바른 사랑을 받지 못한 가정, 깨어진 가정, 반항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오면 치유 받고 회복하고 십자가가 주인된 가정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주지 못한 사랑을 영적 부모가 채워주기도 합니다. 가족에게 돌봄을 받지 못한 고아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가정을 통해 돌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고백록〉으로 유명한 초대교회의 지도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매우 폭력적이고 과격했습니다. 〈고백록〉을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가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런 남편과 어떻게 삽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그런 남편도 주께 하듯 섬기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모니카의 생애가 〈고백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술 취한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컸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수사학자가 되기 위해서 만난 사람이 암브로시우스입니다. 수사학을 배우려고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갔는데 그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고백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버지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듯이 나를 안아주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덕분에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가정, 깨어진 가정, 역기능 가정, 상처 입은 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진 새로운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만나게 된 영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관계는 이 땅에서만 존재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가족은 십자가로 나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가족이 너무 행복해서 십자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히려 모든 풍요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면 더욱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는 가정은 결코 축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어느 순교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친척은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에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가정이라면 육신의 가정이 주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빈자리를 채워줄 것입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인간이 세운 기관이 아니라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상처 입고 깨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가정다우면 교회 같아집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가정 같아집니다. 진정한 가정은 십자가 중심의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의 결론에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정리한 중요한 문장들이 있어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은 복음이 아니다. 만일 가족이 삶의 궁극적 의미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가족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겪었던 역기능 가정이나 당신을 버린 배우자 또는 머나먼 반항의 나라로 떠나버린 자녀가 당신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삶은 우리를 자유케 하여 가족을 이상화하지도 않고 악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게 한다. 십자가에서 짐이 축복인 것을 볼 때 우리는 가족을 짐으로 여기거나 싫어하지 않게 된다. 또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모든 욕구와 갈망을 채워 주기를 바라지 않게 된다. 우리 앞에 영광스럽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당신을 이끌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다. 당신 앞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본향으로 이어진다. 빛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며,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지금 어떤 폭풍과 싸우고 있든 당신은 살아남을 것이다."

가족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통로입니다. 가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경험하고, 가족이 우리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게 됩니다.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면 비로소 가족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행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힌 가정 되게 하시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서빙고		**고양은평**		양성식 유시용		이홍수 박인수				**일산**		장사라 안혜준		박준섭 정승욱		김주형 기숙미		양이레 심규정		지은성 손미혜		황예진 박나영		**W**	
가정사역		유시연 김선경		이종혁 최일섭		이홍수 김한호		**영등포구로**		한경민 심은하		장지혜 정홍미		서영민 안연환		배서호 김은희		이성정 오성진		홍다혜 최희진				신보영 라명희	
오영보 양상훈		이재준 서상희		장병주 유시용		장학만 안광식		김영옥 빙지영		**중국어예배**		**OCC**		송서현 김정훈		신주영 최아름									
채 연 김리나		이진영 김정순		**마포**		**성동광진**		**용산**		WU XUEMEI		안창희 문경숙		우수미 신성자		이하민 오효순									
최진원 정찬희		**관악금천**		강진숙 이경옥		임다희 이영미		김영미 기숙미		CHE LIHUA		이주현 박정미		이지영 박세나		전승표 박문기									
강서		여인평 김 준		고형지 장현희		정경희 김진영		최혜연 박은경		**중종로**		주명진 한정선		조수정 김신자		정주효 김상옥									
김도현 한만협		**김포**		김장순 전현배		**성북**		**이수**		신영희 이정숙		**OEM**		현신순 함선영		**공동체 없음**									
김보미 권정인		김기환 박혁호		**북누리**		이의형 이은경		김라빈 김희성		은재승 강성두		이은주 제이미차		**대청**		김미영 염미영									
김상희 송은영		신진호 이세원		유미나 김순천		**신용산**		**이촌**		이보라 허보리		**S브릿지**		**요셉**		**CH Plus**									
오혜령 권정인		**동대문중랑**		**서대문**		김지연 유재은		김동현 김계순		이순희 강미란		강수정 김한나		김성민 김동원		엄소연 김미정									
임두완 박진영		김정희 이정화		석아름 박미실		문흥대 윤수민		오소이 장연정		홍지은 서정숙		고지현 이경옥		김 향 이경남		**SNS**									
강촌		민여진 엄미라		우희창 추교열		주재범 김윤복		정구열 김성태		**공동체 없음**		김경하 최한나		문영걸 이초섭		고다현 이정수									
송현지 양경화		박성진 주성대		장진경 김성일		**양천**		최인경 서미순		김창은 김영민		김소은 이두희		심 균 이현철		김태청 문석곤									
이운섭 박미룡		**동작**		**서빙고**		경재연 이민경		최준이 김형국		김하영 조진영		김재훈 김대훈		유민정 이경희		박소미 계문순									
										박사라 홍기순		박경희 황한나		**하늘**		반가희 이희진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6월 20일(주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3부 예배
수료대상자는 오전 11시까지 해당 캠퍼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빙고 수료대상자: 서빙고 본당 우측 성가대석 앞
대상자: 4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완료보고한 성도입니다.

서빙고	김대엽	문혜영	양미애	정제영
	김명숙	박연정	엄재원	하화정
김효구 장로반	김보민	서우택	윤민희	한정현
	김영옥	신상국	이순영	한지윤
강순종	김영훈	신승준	이정현	홍기영
권준형	김혜영	신영미	이창희	홍정화
김기원	문예원	안정희	전진성	

1347호 20210606 게시판_온누리신문 21. 6. 4. 오후 3:07 페이지 2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소리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24
제너셈 7층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1 Centorian Dr. Mairangi,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동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韓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김관수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ànghǎishì Mǐnhángqū Cáobǎolù 1243hào yǒngwèishāngwùdàshà 3lóu 388shì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김소리
김상수 이해영 신동식 서경남
이준호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지영 고범석 권오향
권용갑 길혜영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희태 렴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무엘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행삼 백인규
변대섭 서 현 송석근 송재호
신기섭 신원석 스티브차 안사무엘
앤드류김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원유경 웨슬리맥커리
유수열 유영순 유승현 유진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훈 이길탁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한효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주기철
지대근 최대흥 최성민 최성석
최용준 최혁중 하청훈 한은선
한화수 한충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승겸 김한국 신현민 송동주
윤수신 장재원 전병천 최종현
최성규 하성희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박이호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구혜미 김바울
김병철 김세현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권수진 노태규 네트라
뉴이엔은 랜디빠당줄렉스 마주마누룽 민현식
박근명 박씨마 백승현 싱루아미냐
사가르 윌리엄 이원준 이성광
이승윤 이진이 유승덕 윤준석
윤치연 임선아 장미숙 제인량
최일관 최정현 차제이미 크리스티안
허루슬란

◈전도사(파트)
권은영 김근희 김두일 김동규
김세미 김세환 김수영 김의연
김은하 김은혜 김용태 김주영
김정미 김정호 김지선 김진성
김진희 김태광 김태영 노동준
민근홍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소망 박영규 박영우
박이호 박은만 박유진 박지수
박정우 박찬양 박태훈 박현식
방성주 빌 케 배명지 백요한
서예찬 서영찬 서영철 송유진
송선애 송우항 송예찬 승소영
신기한 신대종 양주영 여지휘
여현구 오국헌 오성광 오태경
오현교 용상은 우승민 유성하
윤신혁 윤슬기 윤지은 윤태정
윤효정 이경아 이민희 이사무엘
이상욱 이상은 이선영 이세영
이송희 이수호 이신임 이엘렌
이용민 이진기 이진수 이주원
이찬양 이태호 이호준 이현석
이형목 임광명 임노완 임송아
임지성 임진숙 임정민 장광석
장사라 장요셉 장요한 장지훈
전소리 정상원 정연영 정준혁
정에스더 정연상 정예은 조은광
주영상 주하늘 지수정 진선미
진성희 최규종 최은영 최선재
최휘준 카와무라 요시키 한영철 한용태
허정현 황귀희 황연신 황유일

◈사역장로
강기석 강인지 강의선 강찬석
구재영 권도원 권득한 권영석
권용성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승열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웅배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이곤
김인화 김장렬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하중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영태
박용국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배 문 배종수 백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서창희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영섭
윤영오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옥연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융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택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돈영 정병균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항진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차준구 천영무 최득린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피터웰디 편무옥
하영철 하용기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양희 한종대 한형식
함공식 함선호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종철 황영옥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은철 강창재 강철호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권순형
곽진성 곽희준 권오습 권오혁
권용한 금세종 김경돈 김관식
김광하 김기섭 김기영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민찬 김명세 김명현 김명훈
김병순 김병옥 김상집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신원 김연상 김영관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용기
김용호 김 원 김의득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정훈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해기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광욱 나상권 나 영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정진
남주언 노기홍 노하수 류기범
명영찬 문쌍찬 문영기 문창호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성규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지수 박재두
박치완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방찬종 배기영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송동섭
송영범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헌승 심길섭 심희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헌 양상식
양춘경 양충식 오 명 오범규
오상록 오성훈 오이식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병진 유재홍
유 형 육동건 윤석우 윤석주
윤영각 윤현덕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욱 이백용
이봉의 이상도 이상율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우경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은일 이인용
이재광 이재규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우 이종철
이태열 이태환 이학일 이해달
이헌규 이홍선 임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 훈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 광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전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상기
정수업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운섭 정운오 정응화
정진하 정진호 정태경 정파종
정학영 정희원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청구 조희동
주재량 진종구 차준한 최도성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용재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최호림 하성기 하주헌
한백진 한복규 한상규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범식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충선 홍해남 황병원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찬구 양원명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임대지
장옥룡 장응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차드브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은혜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이혜경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상욱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에셀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요셉 박윤진 박지훈 배영근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지연
안희준 오주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균 최요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관수
김철진 김태완 박신웅 송영동
송재호 유현목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
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최 박재영 서재범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강일영 강일하 강찬호 금동섭
김기홍 김도일 김명성 김인숙
김시연 김진우 김재형 김찬우
김태환 노경호 박대원 박수환
박주영 박종훈 방지남 배성우
백인호 변범섭 서성광 신영흠
손미경 엄영기 우윤상 유동우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은택
이정주 이형근 임봉순 오정택
장제홍 전상현 전홍천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의환
진영국 최영진 최 욱 최정무
홍동욱 홍성훈 홍세반 홍정표
Bob Koo Joseph Chu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은주 김건우 김성민 김성연
김성진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지현 김진완 김창식 김현경
구혜선 마커스 문하나 박미은
박승홍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향진 박현욱 배윤희 서재욱
설산정 손주은 송민선 신기원
심형진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상수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재경 이주영 이현우 임지훈
윤성민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지자영 전희동 정 결 정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진영 지자영
조 단 최정수 최지연 최진숙
하보라 하청훈 한현희 코바야
시 메구 핸슨오
Christine Daniel Kim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Rachel Back
SamLee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김경덕 김현중 남 영
박이훈 서인택 이정기 임병옥
정길안

◈시무장로
고성환 권덕수 권우중 김수호
김재동 박호택 성헌제 손정래
신중수 여훈필 우승호 이관표
이광철 이문호 이상현 이준상
장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코다이라노리히로 허규회 홍관희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종수 윤창근 윤한돈 임헌식
정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김좌겸
김진용 김현희 남명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이지은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결혼

6월 12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홀
이길수, 김미리의 아들 이경재(온누리교회)
김재용, 이은재(수지선한목자교회)의 딸
김예림(온누리교회)

6월 12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홀
이수완, 김윤경(온누리교회 장로, 권사)의 아들
이성규(온누리교회)
안은섭, 김영신의 딸 안수진(온누리교회)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내용: 중장기쉼터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후원과 자원봉사 요청
문의: 유호연 실장(031-399-7997)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가전제품 및 소형 가구, 생필품 후원요청
내용: 쉼터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주거물품 및 생필품 후원 요청
문의: 이수진 팀장(031-360-1824)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법률상담 봉사자 모집
내용: 매월 둘째 주 월요일(15시~17시) 어르신 대상
무료법률상담 진행
문의: 고진솔 사회복지사(02-794-6100)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IT체험존 봉사자 모집
내용: 퍼스널, 그룹형 인지훈련로봇, AI로봇, VR 체험존 활동보조
문의: 송승현 사회복지사(02-3474-6080)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전문재능 봉사자 모집
개요 : 10시~16시, 내곡 쉼터, 전문분야(법률, 금융, 심리 등)
문의: 김지예 사회복지사(02-6953-7134)

서초50플러스센터 사.이.다 공모전 개최
내용: 사소하지만 이득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15분 영상으로 제출
문의: 선초원PM(070-4304-6913)

재 정

십일조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소천

5/19(수) 양재 하정호 성도 부인상 고 배연숙
5/27(목) 푸른누리 이용운 성도 모친상 고 심영순
5/27(목) 한강 양혜령 집사 모친상 고 황영균
5/27(목) 강촌 조승국 집사 빙부상 고 서용주
5/28(금) 이천선교 이영재 선교사 모친상 고 강신자
5/28(금) 한강 안범섭 성도 부친상 고 안영오
5/29(토) 성동광진 이태환 장로 빙모상 고 이청자
5/29(토) 동작 유의실 권사 부군상 고 이관우
5/29(토) 도곡 한상미 성도 모친상 고 유영주
5/30(주일) 강남E 임경아 성도 부친상 고 임병문
5/30(주일) 강남A 홍승희 성도 부친상 고 홍성근
5/30(주일) 이수 박채영 성도 부친상 고 박병석
5/30(주일) 영등포구로 김찬영 집사 모친상 고 정지춘
5/30(주일) 용산 황권택 성도 부친상 고 황호영
5/31(월) 서대문 홍경희 집사 모친상 고 이순희
5/31(월) 강남B 이성미 안수집사 부군상 고 김정태
5/31(월) 분당B 이선원 권사 모친상 고 서정님
5/31(월) 강남C 최은주 안수집사 부친상 고 최복진
6/1(화) 광명, 누리사랑부 고 이명열 집사
6/1(화) 강남E 윤두식 성도 부친상 고 윤진수
6/2(수) 강남B 신종희 안수집사 모친상 고 안신자
6/2(수) 분당B 이일한 성도 부친상 고 이진범

1347호 20210606 게시판_온누리신문 21. 6. 4. 오후 3:07 페이지 3

6월 3일, 10일, 17일

찬양 사역자 **김명식**
1990년대 추억의 찬양이야기

6월 24일 / 7월 1일, 8일

찬양 사역자 **강명식**
2000년대 추억의 찬양이야기

방송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MC 가수 김영우, 정다운

다시보기 CGNTV 웹사이트 www.cgntv.net, 유튜브 CGNTV 채널
* 한국전쟁부터 시작된 찬양이야기 '윤항기 목사'편과 1980년대 찬양이야기 '함춘호 교수'편 모두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CGNTV 정기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